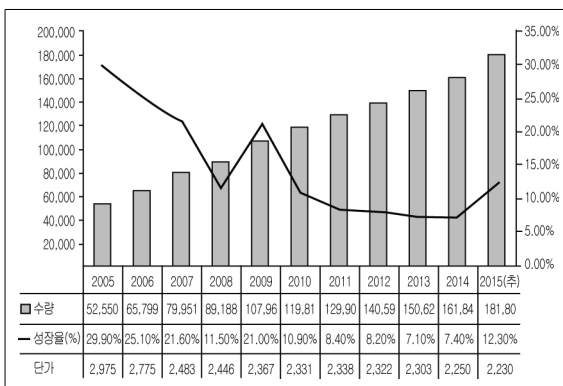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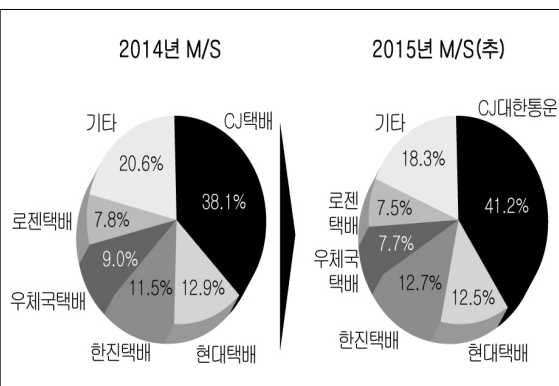
1. 2015~2016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, 택배 부문

- ☑ 2015년 택배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6,261억 원보다 약 12.3% 성장한 4조 5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, 성장률도 2010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전망
- 2015년 택배물동량 증가는 모바일 쇼핑과 해외직구족 증가, 경기침체로 인한 실속형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쇼핑 증가, 상반기 메르스 여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, 택배단가는 2,250원('14년) 보다 약 20원 정도 하락한 2,230원('15년) 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함
- 시장 점유율 변화에서 CJ대한통운은 38.1%('14년)보다 약 3.1%포인트 증가한 41.2%('15년)를 기록하며, 업계 최초로 시장점유율 40%를 넘어서고 있음
- 2015년 택배산업 주요 이슈는 ①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 계획 보류, ② 중견택배업체 간 M&A 활발, ③ 쿠팡 VS 택배업계, 법적 공방, ④ 당일배송서비스를 비롯한 고객 차별화 전략, ⑤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경쟁 가열 등으로 요약됨
-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2016년 가장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분야로는 '택배(72.0%)'와 '항공 운송(42.0%)'이 꼽히는 등 2016년에도 택배업계와 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
[그림 1] 택배물량 성장 추이



[그림 2] 택배업체 시장 점유율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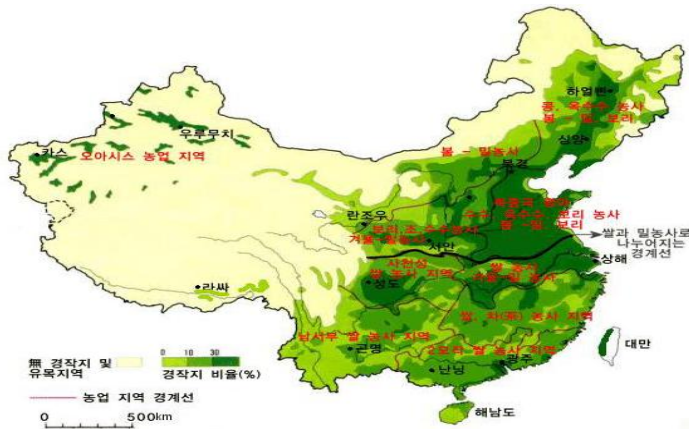


출처: 물류신문(2015. 12. 16), '2015~2016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: 택배 부문'.

2. 중국 우정, 웹사이트 통해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

- ☒ 2014년 5월, 중국 우정이 농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후이성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런칭한 'ule.com' 사이트가 현재 중국 전역의 28개 성,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농부들과 비즈니스 딜러로부터 각광받으며 순항 중
 - 중국 우정은 안후이성 인민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농부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훈련 세션을 조직하는 등 고객들 사이에서 웹사이트(ule.com)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
 - 실제로 웹사이트에 등록된 농부의 수와 농산물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금융 서비스, 물류, 우편 배달사업 등 중국 우정 그룹 전반에 걸친 성장을 촉진
 - 이 같은 중국 우정의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노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'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촉진 의견'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
 - 중국 정부 발표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일부 농촌 전자상거래 시험현(示范縣)을 육성하고 농촌 유통원가 인하, 제품 상품화율 및 농민 수입 향상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

[그림 3] 중국의 농업 지역 분포 현황



<참고 자료>

서부 고원의 경우 유목 관개 농업, 동베 이 지방은 콩, 수수 등의 잡곡 생산, 화남 지방은 사탕수수, 바나나 등 열대 농작물 재배하는 등 중국은 아직 농사를 짓는 지역의 비율이 높으므로, 농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

출처: Post&Parcel(2016. 1.4), 'China Post uses website to promote rural e-commerce'.
KOTRA(2016. 1.7), '중국 전자상거래 열풍, 농촌까지 불어닥친다'.

3. 일본우정, TPP 타결 계기로 쿨 EMS 서비스 확대

- ☒ 일본우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발효를 앞두고 일본항공(JAL)과 손잡고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던 농산물 냉장수송서비스(쿨 EMS 서비스)를 확대
- 일본우정은 홍콩과 대만, 싱가포르 등으로 농·수산물을 보낼 때 이들 정도 소요되는 “쿨 EMS 서비스”를 취급하는 일본 내 우체국을 2016년 4월까지 20% 늘릴 예정
 - 또한 현재까지는 작은 사이즈의 짐밖에 보낼 수 없었으나, 2016년 봄부터는 몸길이 50cm 가량의 생선이 통째로 들어가는 대형 용기도 추가할 계획
 - 일본우정뿐만 아니라 닛폰유센(운항선사), 야마토운수(택배사) 등 일본 민간 물류업체에서도 TPP 참가국을 대상으로 특송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
 - 닛폰유센은 저온에서 산화를 방지하면서 과일과 채소를 수송하는 서비스를 시작, 특수 장비를 컨테이너에 장착하여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2주가량 유지할 수 있게 함
 - 야마토운수는 전일본공수(ANA)와 공동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만, 싱가포르 등 TPP 참가국을 대상으로 특수 운송 서비스를 시작,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

[그림 4] 일본우정의 쿨 EMS 서비스



<참고 자료> 쿨 EMS 서비스: 72~80시간 정도를 일정온도(2~10도)로 유지하는 전용 보냉용기 및 보냉체를 이용, 아시아 각지로 익일 혹은 익일일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일본공항까지는 일본우정이, 항공수송은 JAL이 담당하고 현지에서는 각국 우체국이 배송하는 서비스임

출처: Post&Parcel(2016. 1. 11), 'A taste of Japan, in Singapore'.

조선일보(2015. 11. 11), '일본 TPP 타결 계기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 채비'.

4. DHL글로벌포워딩(DGF)의 매각 또는 기업분할 가능성 제기

☑ 로이터에서 예상하는 DGF 유력 인수후보는 일본우정

- 일본우정이 DGF를 인수할 경우 2014년 기준 항공부문 매출 세계 2위, 물동량 세계 1위 포워더에 등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(DGF 예상 매각액은 40~50억 달러)
 - 매출액 220억 달러, 연간 물동량 238만 6,000t의 거대 항공포워더가 탄생

☑ 도이치포스트그룹은 포워딩 사업을 정리하고 본업인 우편, DHL 익스프레스 화물사업에 집중하는 방안 고려

- '15년 DGF는 IT시스템에 대한 투자 실패로 3억 4,500만 유로의 감가상각 발생
 - 이로 인해 연간 이익이 2억 9,300만 유로로 39% 감소
- 높은 화물포워딩 시장 점유율과 비교해 낮은 성장률도 매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
 - 포워딩 시장에서 DGF의 추정 점유율은 8.4%, 항공화물 포워딩 점유율은 7.8%
 - 이런 높은 점유율에도 화물포워딩 사업에서 '15년 3분기 3억 7,900만 달러 손실
 - DGF의 '14년 연간 매출액은 170억 달러, 이익은 3억 3,100만 달러로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%

〈표 1〉 2014년 포워더 항공부문 매출 및 물동량 순위

(단위: 100만 달러, 1천 t)

순위	업체명	연매출	순위	업체명	연간 항공화물
1	퀴네+나겔	23,293	1	DGF&툰	2,386
2	DGF&툰	22,019	2	퀴네+나겔	1,194
3	DB셴커	19,861	3	DB셴커	1,112
4	일본통운	17,916	4	UPS	913
5	CH로빈슨	13,470	5	킨테즈 월드와이드	872

출처: 암스트롱 앤 어소시에이츠

출처: Cargo News(2016. 2. 15), 'DGF, 일본우정에 매각 가능성 높아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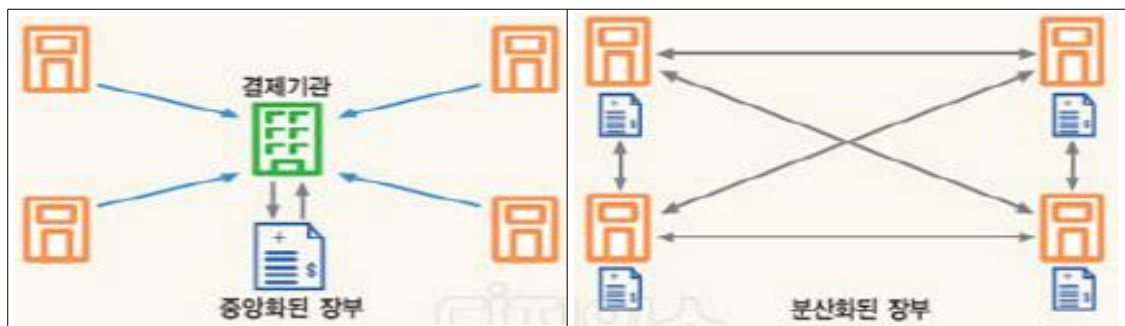
5. 국내·외 금융권의 '블록체인(Blockchain)' 도입 실태

- ☑ 최근 해외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
 - 글로벌 22개 은행들은 블록체인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
 - 시스템 활용영역을 송금 등 금융거래에서 주식, 채권,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 예정
- ☑ 국내에서도 최근 주요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 타진
 - (KB금융그룹)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서비스, 개인인증서, 문서보안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제휴 추진
 - (신한은행)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협업 계획
 - (우리은행)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
 - (NH농협은행) 국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
 - (KEB하나은행)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'원큐랩'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증체계,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[그림 5] 블록체인 개념도

[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]

[블록체인형(P2P) 네트워크]



<참고자료> 블록체인은 별도의 거래관리 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기록 장부를 공동으로 보관, 검증, 기록함으로써 시스템 유지비용이 적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점 보유

출처: 전국은행연합회(2016. 1), '블록체인의 개념 및 국내외 금융권 도입 현황'.

6. 전자상거래 시대 택배, 편의점을 배송거점으로

- ☒ ‘ラスト 1마일’ 넘어 ‘ラスト 1분’의 시대에 적합한 배송거점은 편의점
 - 전자상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상품의 수취는 물리적 운송망에 의존해야 하며 고객 최접점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됨
 - 고객 집까지의 ‘ラスト 1마일’이 택배 및 전자상거래의 경쟁우위성을 좌우
 - 편의점을 배송거점으로 삼는 것은 라스트 1마일을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이자, 소비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대안도 되고 있음
 - 소비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사 입장에서는 재배송의 부담이 줄고 보관 안전성이 높다는 효과
- ☒ 일본의 로손은 사가와큐빈 및 일본 우정과 업무제휴를 맺고 택배를 위탁
 - 로손 매장에서 수취하거나 500m권내 가정에 배송(로손 매장 판매 제품도 함께 배송 가능)
 - 일본 우정도 로손을 통해 편의점 수취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수취자 부재 시 지정된 로손 점포에 보관하고 고객이 24시간 자유롭게 수취토록 함
 - 국내에서는 업계최초로 편의점 CU가 ‘택배보관 서비스’ 시행
 - 고객이 택배 기사에게 배송을 원하는 CU 점포명을 알려주면 사물함 형식의 택배보관함에 물품 보관(수수료 부과)
 - 도난·분실을 방지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어 호응

〔그림 6〕 CU의 택배보관 서비스



출처: 아시아투데이

출처: 물류신문(2016. 2. 16), ‘EC시대 택배, 편의점에서 라스트 1분 줄여라!’.
아시아투데이(2016. 2. 22), “불안한 택배를 부탁해”... CU, 택배보관서비스 큰 호응’.